

문명리터러시로 본 중국 근대 독본류 교과서의 내용적 특징*

— 1840년에서 1949년까지의 국어독본을 중심으로

정유선** · 강설금***

목 차

1. 머리말
 2. 청말 국어독본에 보이는 문명리터러시
 - 1) 군사 및 과학 기술의 근대화 중시
 - 2) 근대적 엘리트 인재의 양성
 3. 중화민국 시기 국어독본에 보이는 문명리터러시
 - 1) 인문 사상과 제도의 서구화 지향
 - 2) 공화국 국민 양성을 위한 교육 대중화
 4. 맺음말
- ※ 부록: 중국 근대 국어독본 50종

국문초록

문명리터러시는 읽기를 바탕으로 문명적 가치와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내면화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근대 중국의 독본류 교과서는 서구 문명의 수용과 전통적 가치의 조화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담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사회가 문명리터러시를 어떻게 구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3232)

**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부교수(제1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객원교수(교신저자)

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위 연구를 위해 중국 근대 시기에 가장 널리 사용된 국어독본 50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시기별 문명리터러시의 내용적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키워드: 중국, 근대, 교과서, 독본, 문명리터러시

1. 머리말

일반적으로 ‘리터러시(literacy)’는 文解力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반드시 ‘읽기’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文明(civilization)에 초점이 맞춰진 ‘문명리터러시(Civilized Literacy)’는 읽기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비판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문명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문명에 관한 내용이 담긴 텍스트 읽기를 바탕으로 문명적 가치와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내면화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근대 중국의 독본²⁾류 교과서는 서구 문명의 수용과 전통적 가치의 조화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담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사회가 문명리터러시를 어떻게 구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1) 「근현대(1860~1945) 한중일 교과서를 통해 본 문명리터러시 연구: 독본류 교과서를 중심으로」(2022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일반공동연구) 연구계획서 3쪽)과 정유선의 「수용과 모색: 19세기 말 중국 근대 독본류 교과서로 본 문명리터러시-上海 南洋公學의 『新訂蒙學課本』을 중심으로」(『中國小說論叢』 7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23. 163쪽) 참조.

2) 讀本은 일본에서 도입된 용어로, 근대 시기 동아시아 교육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근대적 학제와 교육 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읽기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의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바로 1872년 일본에서 『소학독본』을 교과서로 채택한 이후,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근대 학제 도입과 함께 읽기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명칭으로 채택하였다. 강미정, 「근대 계몽기 교과서를 통해 본 문명리터러시-『신정심상소학』, 『초등소학』,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100집, 한민족어문학회, 2023, 152쪽. 참조

근대의 중국 독본류 교과서는 여러 중요한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1840년의 아편전쟁과 1894년의 청일전쟁, 1911년의 신해혁명과 1912년 중화민국 건국, 1920년의 백화문운동 등은 근대 독본류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과서 연구에 있어 중화민국의 건립은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중화민국의 교육 이념과 학제 모두 청조와 크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화민국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근대 국어독본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시 중화민국 건국을 기점으로 그 이전 시기를 세분화하여 청일전쟁 전과 후로 나누고, 중화민국 건국 이후는 백화문운동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³⁾ 위 연구를 위해 본 고에서는 중국 근대 시기에 가장 널리 사용된 국어독본⁴⁾ 50종⁵⁾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시기별 문명리터러시의 내용적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⁶⁾

3) 본 고에서는 중국 근대 독본류 교과서의 시기 구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중화민국 건국 이전을 ‘청말’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1차 아편전쟁이 발발한 1840에서 1911년 신해혁명까지로 설정했다. 이 시기는 다시 청일전쟁이 일어난 1895년을 기준으로 전(1840-1895)과 후(1895-1911)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 설정한 중화민국 시기는 건국한 해인 1912년에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전인 1949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다시 백화문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전(1912-1920)과 후(1920-1949)로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4) 본 고에서는 ‘국어독본’을 ‘독본류 국어 교과서’라는 의미로 사용했으며, 간혹 논리를 전개하면서 ‘국어 교과서’라고도 표현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5) 본 고에서 연구텍스트로 삼은 중국 근대 독본류 국어 교과서 50종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별도로 부록에 명시하였다.

6) 본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의 중국 근대 교과서 연구는 주로 근대 교과서의 기본적인 체제와 개별 텍스트 분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국 근대 교과서를 통한 서양 근대 문명리터러시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재까지 관련 연구 성과는 정유선의 「수용과 모색: 19세기 말 중국 근대 독본류 교과서로 본 문명리터러시—上海 南洋公學의 『新訂蒙學課本』을 중심으로」(『中國小說論叢』 제71輯, 2023), 강설금의 「근대 초기 국어 교과서의 中西併用的 양상—清末民初 初等小學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中語中文學』 제7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9), 류바오취안·샤오상양의 「清末 蒙學識字教育의 근대지향성 고찰—『澄衷蒙學堂字課圖說』을 중심으로」(『아시아문화연구』 제36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

2. 청말 국어독본에 보이는 문명리터러시

제1차 아편전쟁(1840-1842)은 중국 근대화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자 서구 문명과의 첫 대규모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중화주의적 천하관과 화이관에 안주하며 안일한 태도를 지녔던 중국인들은 1840년 영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며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과거 서양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보다 뒤떨어졌다고 여겼으나 서양이 중국을 끊임없이 침략하며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양 열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중 서양의 군사 지식과 과학기술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지식인들은 이를 중국에 전파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기존의 전통 교육과 교과서 역시 이에 맞는 근대적인 내용과 형태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1) 군사 및 과학기술의 근대화 중시

이 시기 서양의 과학기술과 군사 지식의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교회 출판사⁷⁾였다. 특히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게 되자, 교회학교⁸⁾도 빠르게 확산했다.⁹⁾ 이들은 교회학교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사용할 교과서를 제작할 출판사를 세웠다. 1870년대 초 교회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대부분 교회 출판사에서 직접 편찬하고 출판한 西學 관련 서적이었다.¹⁰⁾ 이들 서적은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 서학 지식을 널리 보

화연구소, 2014)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840년에서 1949년까지의 중국 근대 교과서를 대상으로 위 3편에서 제시한 중국 근대 교과서를 문명리터러시의 매개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연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7) 교회에서 운영하는 출판사를 말함. 이하 교회 출판사로 지칭.

8)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함. 이하 교회학교로 지칭.

9) 吳小鷗, 『中國近代教科書的啓蒙價值』,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1. 13쪽.

10) 교회 출판사의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서구 근대 지식을 중국에 전달하는 소명 또한 가

급할 수 있는 독본으로 활용되었으며, 교회학교의 교과서는 물론 각 지방의 서원 교재로도 사용되었다.¹¹⁾ 당시 서양의 군사 지식과 과학기술은 이 같은 경로로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증추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교회 출판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墨海書館은 1843년 영국 런던교회가 설립했으며, 상해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출판사이다. 통계에 따르면, 1844년부터 1860년까지 목해서관에서 출판한 서적은 총 171종이며, 그중 종교 서적이 전체의 80.7%인 138종을 차지했다. 이외에 수학, 물리, 천문, 지리, 역사 등의 과학 지식을 다룬 서적은 33종으로 19.3%를 점유했다.¹²⁾

학교 교과서 편찬위원회로도 불리는 익지서회는 1877년 상해에 세워진 또 다른 교회 출판사였다. 당시에는 별도의 심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익지서회는 출판사의 기능과 더불어 한동안 심의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 출판사는 교과서의 실용적 가치와 선교에 초점을 맞췄음은 물론, 중국 사회의 개혁과 중국인의 지적 개발을 중시하였다. 익지서회는 설립 이후 14년 동안 총 50종의 교과서를 출판했으며,¹³⁾ 이외에 다른 기관이 출판한 48종의 책을 심사했다. 익지서회가 직접 출판한 교과서 가운데 자연과학 분야가 가장 많은데, 算學과 과학 관련 서적이 전체의 54%를 점했다.¹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다수의 교회 출판사는 신앙을 전파하는 한편, 근대 지식을 전수하고 중국인들을 계몽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았다.

11) 吳小鷗, 앞의 책, 3쪽.

12) 목해서관에서 번역하고 출판한 대표적인 교과서는 『幾何原本』(1852), 『光論』(1853), 『重學』(1859), 『談天』(1859), 『代數學』(1859), 『代微積拾級』(1859) 등이다. 鄒振環의 「近百年間上海基督教文字出版及其影響」(『復旦學報(社會科學版)』第3期, 復旦大學, 2002. 28쪽)과 王建明·王曉霞의 『中國近代出版史稿』(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11, 48쪽) 참조.

13) 익지서회에서 출판한 교과서와 서학 서적은 교회학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식 학당에서도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1903년 각 학당에서 주로 사용한 익지서회의 교재는 다음과 같다. 『重學須知』, 『力學須知』, 『電學須知』, 『聲學須知』, 『光學須知』, 『水學須知』, 『熱學須知』, 『動物須知』, 『植物須知』, 『金石略辨』, 『筆算數學』, 『代數備旨』, 『形學備旨』, 『代形合參』 등이다.

14) 익지서회에서 출간된 교과서들은 당시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에 따르면, 186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출판된 서학 관련 서적은 총 555종에 이른다. 그 가운데서 자연과학 서적은 162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며, 응용과학 서적은 225종으로 41%를 점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전체의 70%인 387종으로, 과학 관련 번역서가 압도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890년대 말부터 변곡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바로 교육 이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인문학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2) 근대적 엘리트 인재의 양성

청일전쟁(1894-1895)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촉진하며 중국 내부의 개혁 논의를 가속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청의 패배는 洋務運動(1861-1894)의 실패를 의미했고, 결국 양무운동은 20여 년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유신변법운동(1898)을 전개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봉건 전통 사상과 질서를 유지한 채 서양의 군사기술만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서양의 정치제도와 사상도 함께 도입해 중국의 근본적인 혁신을 꾀하고자 노력했다. 康有為(1858-1927), 梁啓超(1873-1929), 嚴復(1853-1921) 등으로 대표되는 유신파는 신식 학당을 설립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출판해 서양의 근대 지식을 적극적으로 확산할 것을 역설했다. 민간 실업가들도 출판사를 설립해 신식 학당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대량으로 출판하기 시작했다. 청 정부는 1901년 新政을 시행하며 전통 서원을 모두 신식 학당으로 개편할 것을 지시했고, 1905년에는 과거제도를 폐지하였다. 이후 신식 학당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근대 교과서 역시 본격적으로 출판되었다.

청 정부가 1902년 새로운 학제를 발표하자 많은 학교에서 익지서회의 자연과학 교과서를 채택했다. 鄭振環, 앞의 논문, 29-30쪽. 참조.

15) 吳小鷗, 앞의 책, 11쪽.

이후 신식 학당은 우후죽순처럼 전국 곳곳에 설립되었고 학생 수도 대폭 늘어났다. 1902년에는 6,912명이던 것이 1909년에는 1,639,641명으로 늘었으며 1912년에는 총 2,933,387명으로 집계된다.¹⁶⁾ 기존 소수의 근대 출판사는 날로 늘어나는 수많은 신식 학당의 교육 수요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었으며, 더욱이 서양의 상황에 맞춰져 있던 번역 교과서로는 중국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 교과서들은 대부분 이과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어 서양 근대 문명의 기본 골조가 담긴 인문학 교과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들은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신식 학당부터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했으며 민간 출판사와 청 정부가 그 뒤를 잇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국어 교과서로는 『蒙學課本』과 『蒙學讀本全書』를 들 수 있다. 정치가이자 실업가인 盛宣懷(1844-1916)가 상해에 세운 南洋公學은 1897년에 중국 최초의 근대 국어 교과서인 『몽학과본』을 제작했으며, 1901년에는 商務印書館에서 『新訂蒙學課本』으로 재탄생되었다.¹⁷⁾ 같은 해인 1901년 無錫三等公學堂의 교사들이 『신정몽학과본』을 참고하여 『몽학독본전서』를 출간했다. 『몽학과본』과 『몽학독본전서』는 이후의 국어 교과서 편찬에 있어 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 뒤에는 청 정부도 본격적으로 교과서 제작과 출판에 동참했다. 청 정부의 주도로 편찬한 교과서는 1906년에 출간된 『初等小學國文教科書』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초의 국어 교과서이다.

위 세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中體西用의 편찬 원리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근대 시기 중국은 전례 없는 격변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서구 열강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무엇보다도 19세기 중엽 서양 문물의

16) 吳小鵬, 앞의 책, 13쪽.

17) 정유선, 앞의 논문, 163쪽 참조.

우수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중국은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과 지식을 도입하려는 중체서용의 태도로 본격적인 근대화를 시도했다. 중체서용은 ‘중국의 전통[體]을 기반으로 서양의 기술[用]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이홍장, 성선회, 장지동, 孫家鼐(1827-1909) 등 양무파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들은 중국의 문물과 제도는 서양의 그것보다 우수하지만, 선박, 기계, 火器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서양에 뒤처져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유교 사상과 전통 윤리를 고수하면서 서양의 군사기술, 산업 기술, 과학 지식을 도입해 국가 역량을 제고하여 외세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국의 전통에 기반을 두는 中體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정몽학과본』에서 전통 윤리 사상에 관한 두 개의 본문이 가장 두드러진다. 제3편 제8과 「孝行」에서는 西周 시기의 초나라 사람 老萊子와 後漢 江革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수록하고 있다. 제3편 제20과 「薛包 李勸」에서도 중국 역사 속 인물인 설포와 이적의 사연을 통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했다. 이는 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교육 이념 속에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⁸⁾ 이로써 청 정부가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전통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초의 근대 국어독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공자와 유교에 대한 존중도 교육 이념에 포함시켰다. 1906년 청

18) 1903년 11월 張百熙·榮慶·張之洞 등이 제정한 『學務綱要』 제1조에 따르면 초등소학당에서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從幼童入初等小學堂始，爲教員者，於講授功課時務須隨時指導，曉之以尊親之義，納之於規矩之中。”(舒新城，『中國近代教育史資料』上冊，北京：人民教育出版社，1985，197쪽.) 또한 그 다음해인 1904년 1월 청 정부는 『奏定初等小學堂章程』를 발표해 초등소학당은 7세 이상의 국민에게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시기 청 정부는 「奏定學堂章程」(癸卯學制)을 반포했으며 여기에 「奏定初等小學堂章程」, 「奏定高等小學堂章程」, 「奏定中學堂章程」, 「奏定高等學堂章程」 등이 포함된다. (「奏定初等小學堂章程」: “設初等小學堂，令凡國民七歲以上者入焉，以啓其人生應有之知識，立其明倫理，愛國家之根基，並調護兒童身體，令其發育爲宗旨。”(賡鑫圭·唐良炎，『中國近代教育史資料彙編：學制演變』，上海：上海教育出版社，1991，291쪽.)

정부는 ‘尊孔’을 정식 교육 이념으로 제시했으며,¹⁹⁾ 다시 같은 해에 ‘聖敎를 존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모은다’는 취지 아래 청 정부의 교육 담당 부서인 學部에 審定科를 설립했다.²⁰⁾ 청말 국어독본에도 공자와 유교 사상을 강조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신정몽학과본』 제3편 제126과 「공자의 가르침[孔子之敎]」에서 공자의 윤리 사상을 소개한다. 공자는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을 타개할 강구책으로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윤리와 도덕인 효도[孝], 우애[弟], 근신[謹], 신뢰[信], 애민[愛衆], 인[親仁] 여섯 가지를 제시하며 왕도와 正道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는 국왕의 간택을 받지 못한 채 아쉬움을 뒤로하고 학교를 세워 후학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당시 청 정부의 교육 이념에는 공자 사상과 유교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기술을 활용하는 西用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과학, 의학, 통상 관련 지식이 다수 등장한다. 청 정부의 교육 이념과 교과서 심사 기준은 당시 국어독본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1906년 학부는 ‘尙實’ 즉 실리주의를 교과서의 편집 원칙에 포함하는 한편 교과서 심사 기준으로 ‘새로운 지식[新知識]’ 수록을 제시했다.²¹⁾ 이들에게 전수할 새로운 지식은 서학이었다.

『신정몽학과본』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제3편 제47과 「황금[釋黃金]」에서는 황금을 찾는 방법, 제조법, 용도 등을, 제3편 제48과 「철[釋鐵]」에서는 철 제조법, 강철 제조법, 용도 등을, 3편 제54과 「은[釋銀]」에서는 은광에서 은을 추출해 내는 제반 과정과 용도를, 제3편 제55과 「동[釋銅]」에서는 동의 산지, 색상, 용도, 유형 등을, 제3편 제85과 「현미경[釋顯微鏡]」에서는 현미경을 만드는 원리, 유형, 용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3편 제124과 「通商論」에서는 수입과 수출 등 통상의 개념을 소개하며, 아울러 근대 무역의 수단인 선박과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제3편 제103과 「種牛痘說」은 천연두에 대한 소

19) 蘇雲峰, 『中國新教育的萌芽與成長(1860-1928)』,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99-100쪽 참조.

20) 畢苑, 『建造常識: 教科書與近代中國文化轉型』,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0. 141쪽.

21) 畢苑, 앞의 책, 141쪽.

개글이다. 주로 천연두에 무지몽매한 중국인들을 비판하고 영국의 천연두 접종법을 수용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정몽학과본』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형제 간의 우애, 공자와 유교에 대한 존중 등의 전통 윤리 사상을 中體로 보았으며, 광물, 의학, 상업, 근대 교통기구 등을 서학의 범주로 간주하여 설명했다. 다른 교과서들도 대부분 같은 양상으로 보인다. 『몽학독본전서』에서도 중체서용의 편찬 원리를 적용해 전통 윤리 사상을 다루면서도 천문, 생리위생, 주산, 기하학, 동물, 식물, 화학, 물리 등 서양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청 정부에서 편찬한 『초등소학교문교과서』 역시 전통 윤리 사상을 기초로 하는 품행을 근간하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서양의 간단한 과학기술도 함께 다루었다.

청 말에 시행된 근대 교육 이념은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하는 봉건 체제의 근대적 엘리트 관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 이념의 한 축은 전통 유교의 가르침에 기반한 왕정 체제에 대한 충성, 애국, 충효와 같은 덕목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은 실용적인 새로운 서양 근대 지식을 학습한 엘리트 인재 양성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서구 과학기술을 수용하려는 양무파와 초기 유신파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근대 초기 국어독본 역시 이 같은 청 정부가 지향하는 문명리터러시의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3. 중화민국 시기 국어독본에 보이는 문명리터러시

중화민국 시기는 정치적·사회적 변혁 속에서 근대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국민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교과서는 국민 정체성, 정치 체제, 교육 이념, 직업 관념 등을 반영했으며, 중국의 전통과 서구의 근대적 사상을 조화롭게 담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912년 중화민국

수립 이후, 교과서는 대체로 中西併用의 사상을 기반으로 편찬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194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근대 중국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국민 의식과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부터 중국의 근대 교과서는 중서병용의 태도를 바탕으로 근대화과 서구화를 지향하며 당대의 사회적·사상적 변화를 교육적으로 담아낸 중요한 산물이 되었다.

1) 인문 사상과 제도의 서구화 지향

1912년 중화민국 탄생과 함께 교육부는 청조와 다른 새로운 학제를 공포했다. 중화민국의 학제는 청 정부 시절에 비해 초등과 중등의 기간을 줄이는 등 보다 현실적으로 구성되었다. 1912년 9월에서 1913년 8월까지 北洋 정부²²⁾ 교육부는 각종 학교 규정을 새로 정비하였는데, 바로 『壬子·癸丑學制』를 이른다. 소학교는 7년[初等小學 4년, 高等小學 3년]으로 이전과 비교해 1년이 줄었다. 중학교 역시 4년제로 종전에 비해 1년이 단축되었다.²³⁾ 『임자·계축학제』는 일선 학교의 운영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한 결과 교육 현장에 있는 학교들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북양 정부는 국가의 공화제 체제를 표방하면서 공화국 국민의 양성을 주요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²⁴⁾ 공화국 시기의 교육 이념은 근대 공화국 국민을 양

22) 중화민국은 신해혁명 이후 1912년부터 1928년까지 북경을 수도로 한 중화민국 정부를 북양 정부라고 한다. 1928년 장개석의 국민당이 북벌에 성공해 북경에 입성한 뒤 남경에 국민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시기의 중화민국을 남경 국민정부라고 칭한다. 본 장에서는 중화민국에 대해 시기별로 구분하여 북양 정부와 남경 국민정부로 지칭하기로 한다.

23) 강설금, 「중국 근대 교과서 생태계 연구: 인문 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4쪽.

24) 1912년 6월 蔡元培(1868-1940)는 『교육잡지』 제4권 제3호에 「참의원에 정견을 알리는 연설[向參議院宣布政見之演說]」이라는 글을 통해 공화국의 교육 목표가 국민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璩鑫圭·唐良炎, 앞의 책, 614-615쪽 참조.

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는 공화국 국민으로서의 도덕을 함양하고, 지식과 상식을 습득하며,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공화국의 대통령제와 의회제도 및 지방자치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공화국 국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상식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중화민국의 학제와 교육 이념은 학교 교과서에도 반영되었다.²⁵⁾ 이 시기의 국어 교과서는 중서병용의 편찬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 中學과 西學의 범주에 변화를 주었다. 중국 전통 학문의 경우 전통 윤리 사상에만 국한하는 한편 공화제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제도, 관료제도, 신분제도 등을 철저히 배제했다.²⁶⁾ 서학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근대 정치제도, 공화제, 대통령제, 민주, 자유 등으로 확장하였다. 이전 시기에 비해 중학의 범주는 축소되었고 서학의 그것은 정치제도와 사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 대표적인 교과서인 『共和國教科書新國文(初小)』(1912년)에서는 중국 전통 학문을 전통 德育으로 정의하는 한편, 관료제도, 과거제도, 봉건 전제주의, 신분제도 등을 비판했다. 또한 이 책에는 대통령제, 국민정부의 조직

25) 중화민국 북양 정부 시기 교과서와 출판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출판사의 참여이다. 상무인서관은 초창기에 교과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큰 성공을 이루어냈다. 일찍이 1901년부터 타 출판사의 성공적인 교과서를 인쇄함으로써 경제적인 성공을 맛보게 된 상무인서관은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1897년 남양공학에서 출판한 『몽학과본』이 크게 성공하자 그 잠재력을 발견한 상무인서관은 1901년에 이 교과서 개정판을 인쇄하여 전국의 학교에 보급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1911년까지 상무인서관에서 발행한 교과서는 375종에 달했다. 교과서 출판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1912년에 상무인서관에서의 교과서 편찬 경험을 쌓은 沈頤가 중화서국을 설립한다. 중화서국은 상무인서관과의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 덕분에 순조롭게 교과서 시장을 개척했으며 후에는 상무인서관과 함께 출판시장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다.

26) 교육부는 채원배의 공화국 교육 이념에 대한 주장을 정책으로 채택해 1912년 1월 19일 『普通教育暫行辦法』을 반포하면서 민간에서 제작한 교과서는 반드시 공화국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민간에서 통용되는 교과서 가운데 청 왕조에 대해 찬양하거나 봉건 체제에서의 관료제도 및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 등이 수록되었을 경우 모두 삭제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다.(『普通教育暫行辦法』:“凡各種教科書,務合乎共和國宗旨,清學部頒行之教科書,一律禁用.” 據龔圭·唐良炎, 앞의 책, 597쪽. 참조)

방법, 평등, 자유 등의 근대 정치제도를 제시함으로써 공화제의 중요 구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제4책 제2과 「大總統」에서는 공화국의 대통령이 국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됨을 소개했고 대통령의 자질과 선거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6책 제29과 「민족」과 제7책 제3과 「공화국」에서는 별도로 과를 추가하여 선거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제4과 「평등」에서는 전통적인 군주 전체 제도와의 비교 속에서 공화국 국민의 평등성과 우월성을 소개했고, 제5과 「자유」에서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강조하였다.

『新編中華國文教科書』(1913-1914)에서는 지방자치와 집회 등에 대해 소개했다. 제4책 제2과 「중화민국[釋中華民國]」에서는 전통적인 화이사상을 경계하면서 여러 민족 간의 평등을 주장했다. ‘중화’라는 용어의 정치적 색채를 제거하고 지리적 함의에 입각하여 그것을 재해석한 것은 여러 민족의 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이었다. 제5책 제7과 「興學」에서는 전통 시기의 과거제도와 근대 시기 의무교육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문에 따르면 중국은 전통 시기에 이미 塾·庠·序·學 등의 단계적인 학교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을 보급했으나, 근세 들어 과거제도의 폐해가 커져 중국의 實學 발전을 저해하여 사회적 낙후성을 초래하였다고 했다. 제5책 제16과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의 개념 및 중국 역대 지방정치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중화민국 건국 이후에는 국민의 의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이 크게 발전하였다고 강조했다. 제16과에서도 전통 시기 과거제도의 폐해를 크게 강조함으로써 근대 신식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共和國教科書新國文(初小)』(1912년)에서는 공업·농업·상업·광업²⁷⁾, 군

27) 제5책 제8과 「蠶」에서는 蠶에서 繭에로의 변화 과정을 소개한다. 제5책 제9과 「絲」에서는 繭에서 실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과정, 원리를 소개한다. 제6책 제35과 「農」, 제6책 제36과 「工」에서는 자연 상품과 인공 상품을 비교한 후 가공품의 가격과 가치의 증가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공업의 이익이 큼을 강조하였다. 제6책 제37과 「商」에서는 농업, 공업과의 비교 속에서 상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광업 관련 내용으로는 제7책 제41과 「礦物」과 제42과 「煤及炭」 등이 있다. 제8책 제19과 「分業之利益」에서는 분업의 필요성, 중요성을 소개한다. 제8책 제28과 「通商」에서는 통상의 필요

사²⁸⁾ 등에 대해 소개했고, 『新編中華國文教科書』(1913-1914)에서도 서학을 상업, 실업²⁹⁾, 군사³⁰⁾ 평등³¹⁾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서 다루었다. 『商務國語教科書』(1917년)의 경우에는 서학의 영역을 교육사상, 남녀평등, 여성의 권리와 교육으로까지 넓혀 설명하고 있다.³²⁾

이 시기 교과서에 포함하고 있는 서학은 이전 교과서에서 광물학, 의학, 과학 등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전달에 그치는 것과 달리, 범위와 깊이 면에서 더욱 확장되었다. 즉 공업, 농업, 상업, 실업, 광업, 군사, 평등, 자유 외에도 교육, 사상, 남녀평등, 여성의 권리와 교육 등을 다루었다. 특히 五族共和, 대통령 선거법, 지방자치와 집회, 개인의 자유 등 같은 공화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공화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집대성해 전달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성을 소개한 후 중국이 외국과의 통상에서 압박과 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고 그러한 국면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도 소개하였다.

- 28) 『共和國教科書新國文(初小)』에는 근대 군사학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 제2책 제26과에서는 근대 행진 장면을 묘사했고, 제2책 제33과에서는 군대의 야영 상황을 소개했다. 제4책 제47과 「兵」에서는 병사의 역할 및 종류를 소개하였다. 제8책 제31과 「軍人」과 제32과 「兵器」에서는 근대 군대와 무기를 다루었다.
- 29) 제2책 제25과 「商戰」에서는 19세기 이래 근대 서양 열강의 상업 발전 상황을 소개하며 중국의 상업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제6책 제7과 「用機器殖財養民說」과 제19과 「實業之關係」에서는 실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3책 제16과 「貿易」, 제4책 제35과 「資本」, 제6책 제4과 「海權及海產」, 제6책 제18과 「托拉斯」, 제6책 제20과 「利用外資」 등에서는 무역과 외국자본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 30) 제3책 제11과 「武器」와 제5책 제19과 「孫子兵法」, 제6책 제40과 「文明國之戰例」는 근대 무기와 군대 및 전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책 제22과 「徵兵」에서는 군비 절약과 국력 제고에 유익한 징병제 시행을 주장한다.
- 31) 『新編中華國文教科書』 제4책 제32과 「種族」에서는 모든 민족이 평등하며, 단지 근대화 받아들이는 시기적 차이만 존재할 뿐이라고 소개한다. 따라서 중국의 모든 민족이 서로 경쟁을 통해 앞으로 계속 발전하며 부국강병을 실현할 것을 호소한다.
- 32) 강설금, 「근대 초기 국어 교과서의 中西併用的 양상-清末民初 初等小學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77, 한국중어중문학회, 2019. 321쪽.

2) 공화국 국민 양성을 위한 교육 대중화

1920년에는 두 가지의 가장 큰 교육적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이 시기 교과서 편찬에 중대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文體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文言文이었다. 문언문은 고대부터 사용해 왔던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쓰기 형식이다. 이는 교육과 지식의 확산을 저해하고, 근대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의 대중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白話文 글쓰기 형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문화운동³³⁾을 전후로 한 백화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교과서의 문체 또한 전통적인 문언문에서 백화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1916년 10월 북경에서 채원배가 국어연구회를 창립하고 백화문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이에 영향을 받아 정부에서도 1918년 注音符號를 발표하고, 1920년부터는 백화문 교육을 강조하며 백화문 교과서 편찬을 권장했다. 1920년 북양 정부는 1-2학년 국어 교과서를 모두 백화문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으며 1922년 이후에는 초등소학교의 모든 교과서를 백화문으로 기술할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상무인서관에서는 1919년 9월 국음사전인 『國音字典』과 『國音學生字彙』를 출판했으며, 같은 해에 국어 교과서 『新體國語教科書』를 출판했다. 이 교과서는 최초의 중국 소학교 백화문 국어 교과서이다. 이 책이 출판된 이후 전국에 백화문 교과서가 대폭 증가했고, 1920년부터 모든 국어 교과서는 백화문으로 작성되었다. 북양 정부는 소학교에서 중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서의 문체를 백화문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백화문과 문언문의 비

33) 중화민국 초기인 1910년대에 중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봉건주의에 반대하고 사상 해방을 목표로 전개한 문화 운동이다. 운동의 시작 시기를 보는 관점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혹자는 1915년 9월 『청년잡지』 창간을 기점으로 보기도 하고, 또 혹자는 1919년 5·4운동을 기점으로 보기도 한다.

중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학년별로 양자의 비중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귀결된다. 그 결과 백화문을 수용하는 과도기에는 순수 문언문 교재, 문언문과 백화문의 혼합 교재, 백화문 교재 등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920년대 백화문 교재의 특징은 소학교에서 중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급이 올라갈수록 백화문의 비중이 낮아지고 문언문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초등소학교에서는 전면 백화문으로 교과서를 집필했고, 고등소학교부터 문언문의 비중이 점차 커졌다. 1921년의 『新法國語教科書』는 주음부호를 적은 첫 초등소학교 백화문 교과서로, 모든 내용이 백화문으로 구성되었다. 『新教育教科書國文讀本』(1921)은 中華書局이 펴낸 국어독본으로, 백화문과 문언문의 혼합 형태를 취했다. 제1권의 경우 백화문과 문언문을 각각 2대1의 비율로 안배했다.

중학교 교재의 경우 문언문 비중은 고등소학교 교재보다 더 늘어났다. 『新學制初級中學教科書國語』(1923)는 문언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혹 魯迅(1881-1936)의 『고향』과 같은 백화문이 등장하지만, 이 같은 양상은 대단히 소수에 불과하다. 총 40편으로 단원이 이루어져 있는 제5권의 예를 들어보면, 그중 문언문 34편으로 전체 85%를 차지한다. 당시의 문언문을 중시하는 교육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는 문언문의 비중이 가장 높다. 『新學制高級中學教科書國文讀本』(1928)은 중학교에서 일정한 문언문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 목적은 편집 요강에 나와 있듯이 학생들의 독해와 글쓰기 능력의 함양이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문언문을 대량으로 수록함으로써 글쓰기 능력과 독해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본문은 대체로 經史子集에서 선별해서 수록했다. 第1冊(下)에는 주로 『左傳』, 『文史通義』, 『삼국지』, 『史記』 등의 문장이 실렸다. 교과서 본문의 각주는 학생들 스스로 본문의 문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넣었다. 이에 각 페이지마다 난해한 어휘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각주가 제시된다. 각주의 구

체적인 내용은 작가에 대한 소개나 문장 출처·지명·사건에 대한 보충 설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기 중국 전통 학문과 서학은 앞서 언급한 백화문운동 이전의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단, 백화문 사용으로 인해 내용이 훨씬 읽기 쉬운 텍스트로 전환되어 전체적으로 학습하기에 용이해졌다. 백화문운동은 대중이 근대적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백화문 교과서는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백화문의 확산은 근대 문명리더시의 핵심적 목표인 근대 국민의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 다른 교육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新學制이다. 1922년 11월 북양 정부는 「신학제」를 반포하였다. 기존의 학제는 소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기간을 18년으로 규정하였지만, 「신학제」는 미국의 6-3-3제를 모방하여 16년으로 2년 단축했다. 이 학제는 소학교가 그 전에 비하여 1년 줄고,³⁴⁾ 중학교가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다. 이후의 학제는 대체로 이 학제를 모두 따랐다.³⁵⁾

1922년 교육부가 반포한 「신학제」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7가지 교육 이념을 반영하였다. 여기에는 사회 진화의 요구에 부응할 것, 평민 교육 정신을 고취할 것, 개성 발달을 도모할 것, 국민 경제력을 중시할 것, 생활교육을 강조할 것, 교육의 보급을 용이하게 할 것, 각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 등이 포함된다.³⁶⁾ 이는 사회진화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과서 역시 「신학제」 교육 이념을 그대로 반영해 진화론, 평민 교육, 경제력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新學制國語教科書(初級中學用)』(1923)는 중학생들이 지녀야 할 소양과 덕목을 소개하면서 ‘사회 진화의 주요

34) 孫邦正, 『中國學制問題綜合研究』,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67. 20쪽 참조.

35) 강설금, 「중국 근대 교과서 생태계 연구: 인문 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4쪽.

36) 孫邦正, 앞의 책, 15-17쪽.

에 적응'해야 한다는 「신학제」의 교육 이념을 잘 보여준다. 이 교과서는 진화에 대한 채원배의 글을 여러 편 게재함으로써 사회 진화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新中華國文(高級中學用)』(1930)은 고급중학교용 국어 교과서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진화론의 강조이다. 1책의 제1과에 청나라 문학가이자 교육가인 吳汝綸(1840-1903)이 지은 「天演論序」를 수록하고 있다. 이 글은 오여륜이 엄복의 『天演論』(1898)을 위한 서문으로, 이 책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신학제국어교과서(초급중학용)』(1923)는 「신학제」의 교육 이념 가운데서 '평민 교육 정신 함양' 부분도 잘 드러낸다. 이 교과서는 노동자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미래에 대한 전망 및 노력, 직업과 학구열을 겸비한 '신생활' 신조의 강조 등에서 엘리트나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평민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취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상무인서관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한 『新學制初中公民教科書』, 『新學制初中歷史教科書』, 『新學制初中地理教科書』 등 '신학제' 시리즈와 더불어 「신학제」 교육 이념을 잘 보여준다.

그 밖에 국민 경제력을 강조한 교과서도 있다. 『新時代國語教科書(小學校高級用)』(1927)는 고등소학교용 국어 교과서로, 애국, 면학, 단합, 독립 정신, 과학 정신, 직업을 지닌 전문직 여성, 직업정신이 투철한 여학생, 노동자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국민 경제력을 중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권 제21과 「두 명의 독립 여성[兩個自立的女子)」과 제22과 「두 명의 독립 여성[兩個自立的女子2)」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인 黃道婆와 王老娘을 소개한다. 전자는 元代 상해 사람으로, 목화를 심고 천을 짜는 방직업에서 크게 성공한 상인이다. 후자는 淸代 항주 사람으로, 나무 빗을 만드는 업종에서 유명한 사업가이다. 이 교과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의 이상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경제력을 중시하는 신학제의 교육 이념을 잘 드러낸다. 위의 교과서들은 사회진화론, 평민 교육, 경제력 등을 소개함으로써 「신학제」의 교육 이념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1920년대 말부터 국어 교과서는 삼민주의를 갈파하고 있다. 국어 교과서의 이러한 변화는 남경 국민정부의 교육 이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1928년 국민당이 정권을 잡은 후, 기존의 교육 이념을 폐지하고 새로운 이념인 삼민주의를 반포했다. 같은 해 정부는 민족·민생·민권이라는 삼민주의 원칙에 기초한 『中華民國教育宗旨』를 발표하면서 민족정신의 회복, 고유문화의 계승, 정치 지식의 함양, 노동 습관의 배양 등을 주요 교육 목표로 삼았다.³⁷⁾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開明國語課本(小學高級學生用)』은 1932년부터 1935년까지 상해 開明書店에서 발행했던 국어 교과서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삽화가 풍부하게 담겨 있고 3-4개의 단원 뒤에 연습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제21과 「손중산 선생의 소년시기[孫中山先生的少年時代]」는 손중산의 유년 시절을 소개하고 있어 비슷한 연령대의 학습자가 그의 혁명 의지와 바른 성품을 친근하게 배울 수 있게 하였다.

『國語新讀本』은 1933년부터 1936년까지 상해 世界書局에서 출판한 교과서이다. 이 책은 이야기를 통해 국어독해 능력을 기르고 삼민주의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는 데 학습 목표를 두었다. 예를 들어 제5책에서는 손중산의 유년 시절 일화를 통해 공화국에는 황제가 없는 평등한 국가체제라는 것을 가르친다거나 미신, 전족, 인신매매 등 불합리한 악습을 타파할 것을 강조했다. 삼민주의가 추구하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표방하여 만주족 왕조에 대한 비난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당 시기 교과서에서 삼민주의와 손중산 관련 내용이 급증하는 현상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37) 王炳照·郭齊家·劉德華·何曉夏·高奇, 『簡明中國教育史』,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5. 387쪽.

4. 맺음말

근대 독본은 단순한 읽기 교과서를 넘어, 근대 문명의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교과서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다. 독본은 주로 이야기와 서사 형식을 통해 읽기와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서양 문화 수용과 교육의 현대화라는 목적을 담아냈다. 바로 독본은 단순히 읽기 교재를 넘어, 근대적 학문의 도입과 서양 문명의 수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기능했다.³⁸⁾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의 근대 독본 역시 예외없이 근대 문명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파악한 중국 근대 국어독본에 나타난 문명리터러시의 내용적 특징은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대 문명의 수용에 있어 中體西用적 태도에서 中西併用적 태도로 변화되어 갔다. 청말 근대 초기에는 중국의 전통 사상과 체제를 근간에 두고 군사와 과학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할 물질 등 활용 부분에 치우쳐 서구 근대 문명을 배우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이후 점차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양 근대 문명의 근원적인 틀이 되는 정치, 사상, 사회, 체제 등과 같은 인문학 전반에 이르는 요소와 범위 역시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수용하였다.

둘째, 소수의 근대 엘리트 관료 양성에서 다수의 근대 공화국 국민의 양성으로 확대되어 갔다. 청말 지식인과 관료들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해 위기 의식을 느끼며 이를 타개할 방편으로 과학과 군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근대 엘리트 관료를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러나 청과 정치체제가 다른 중화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화국에 대한 이

38) 성운아의 「근대 초기 일본의 국어독본-교육정책의 변화와 문명리터러시」(『일본학보』 138집, 한국일본학회, 2024, 130쪽)와 강진호의 「전통 교육과 ‘국어’ 교과서의 형성-『소학독본』(1895)을 중심으로」(『상허학보』 41집, 상허학회, 2014, 102쪽) 참조.

해를 제고시키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바로 근대 공화국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상은 유지하되 새로운 근대 문명과 제도를 이해하고 부국강병에 일조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국민상을 제시했다.

參考文獻

- 據鑫圭·唐良炎, 『中國近代教育史資料彙編: 學制演變』,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1.
- 舒新城, 『中國近代教育史資料』,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85.
- 蘇雲峰, 『中國新教育的萌芽與成長(1860-1928)』,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 孫邦正, 『中國學制問題綜合研究』,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67.
- 吳小鷗, 『中國近代教科書的啟蒙價值』,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1.
- 王健明·王曉霞, 『中國近代出版史稿』,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11.
- 王炳照·郭齊家·劉德華·何曉夏·高奇, 『簡明中國教育史』,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5.
- 畢苑, 『建造常識: 教科書與近代中國文化轉型』,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0.
- 강미정, 「근대 계몽기 교과서를 통해 본 문명리더러시-『신정심상소학』, 『초등소학』,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100집, 한민족어문학회, 2023.
- 강설금, 「근대 초기 국어 교과서의 中西併用的 양상-清末民初 初等小學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77, 한국중어중문학회, 2019.
- 강진호, 「전통 교육과 ‘국어’ 교과서의 형성-『소학독본』(1895)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1집, 상허학회, 2014.
- 류바오취안·샤오상상, 「清末 蒙學識字教育의 근대지향성 고찰-『澄衷蒙學堂字課圖說』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36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 성윤아, 「근대 초기 일본의 국어독본-교육정책의 변화와 문명리더러시」, 『일본학보』 138집, 한국일본학회, 2024.
- 정유선, 「수용과 모색: 19세기 말 중국 근대 독본류 교과서로 본 문명리더러시-上海 南洋公學의 『新訂蒙學課本』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第71輯, 2023.
- 강설금, 「중국 근대 교과서 생태계 연구: 인문 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鄒振環, 『近百年間上海基督教文字出版及其影響』, 『復旦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復旦大學, 2002.

※ 부록: 중국 근대 국어독본 50종

- 『蒙學課本』, 陳懋治, 杜嗣程, 沈慶鴻 編, 南洋公學, 1897.(『新訂蒙學課本』, 商務印書館, 1901)
- 『蒙學讀本全書』, 俞復, 丁寶書 編, 丁寶書 그림, 上海文瀾書局, 1901.
- 『高等小學國文讀本』, 文明書局(無錫三等公學堂), 1907.
- 『初等小學國文教科書』, 學部編譯圖書局, 1907.
- 『國文教科書中學堂用』, 吳曾祺 編, 商務印書館, 1908.
- 『重訂中學國文讀本』, 林紓 編, 商務印書館, 1908.
- 『共和國教科書新國文(初小)』, 莊俞, 沈頤 編, 商務印書館, 1912.
- 『新法國語教科書』, 王國元, 呂思勉 等 編校, 商務印書館, 1912.
- 『訂正初等小學女子國文教科書』, 戴克敦 等 編, 商務印書館, 1912.
- 『中華中學國文教科書』, 劉法曾, 姚漢章 評輯, 中華書局, 1912.
- 『中華高等小學國文教科書』, 汪渤, 何振武 編, 中華書局, 1912.
- 『新制單級國文教科書』, 劉傳厚, 范源廉, 沈頤 編, 中華書局, 1913.
- 『新編中華國文教科書』, 沈頤, 楊喆 編, 商務印書館, 1913.
- 『中華初等小學國文教科書』, 華鴻年, 何振武 編, 中華書局, 1913.
- 『訂正初等小學校女子國文教科書』, 戴克敦 等 編, 商務印書館, 1913.
- 『中華女子國文教科書』, 沈頤, 范源廉, 楊喆 編, 中華書局, 1914.
- 『新制國文教本』, 謝蒙 編, 中華書局, 1914
- 『實用國文教科書』, 北京教育圖書社 編纂, 商務印書館, 1915.
- 『新式高等小學國文教科書』, 呂思勉 主編, 中華書局, 1916
- 『商務國語教科書』, 莊俞 等 編, 商務印書館, 1917.

- 『新體國語教科書』，庄适、黎锦熙 編，商務印書館，1919.
- 『新法國語教科書』，莊適 編，商務印書館，1921.
- 『新教育教科書國文讀本』，朱麟 等 編校，中華書局，1921.
- 『新法國語教科書』，沈圻 編，商務印書館，1922.
- 『新學制國語教科書(初等小學)』，莊適、吳研因、沈圻 編，商務印書館，1923.
- 『新學制國語教科書(初級中學)』，莊適、吳研因、沈圻 編，商務印書館，1923.
- 『新學制初級中學教科書國語』，顧頡剛、葉紹鈞 編，商務印書館，1923.
- 『新法國語文教科書』，方賓觀、莊適、顧頡剛、范祥善 編，世界書局，1923.
- 『現代初中教科書國文』，莊適 編，商務印書館，1924.
- 『初級國語讀本』，魏冰心 編，世界書局，1924.
- 『新學制小學教科書高級國語文讀本』，魏冰心 編，世界書局，1925.
- 『新時代國語教科書(小學校高級用)』，胡貞惠 編，商務印書館，1927.
- 『新學制高級中學教科書國文讀本』，江恒源 編，商務印書館，1928.
- 『新中華國語與國文教科書』，朱文叔 編，中華書局，1929.
- 『新中華國文』，沈頤 編，中華書局，1930.
- 『高中國文』，羅根澤、高遠公 編，北平文化學社，1932.
- 『新學制國語教科書(初小)』，吳研因、莊適、沈圻 編，商務印書館，1932.
- 『開明國語課本(小學初級學生用)』，葉聖陶 編，豐子愷 그림，開明書店，1932.
- 『開明國語課本(小學高級學生用)』，葉聖陶 編，豐子愷 그림，開明書店，1932.
- 『國語新讀本』，吳研因 編，陳丹旭、龐亦鵬 그림，世界書局，1933.
- 『新生活教科書國語』，蔣息岑、沈百英 等 編，張令濤 그림，大東書局，1933.
- 『初級中學教本國文』，張弓 編，大東書局，1933.
- 『初中國文選本』，羅根澤、高遠公 編，立達書局，1933.
- 『高中國文選本』，羅根澤、高遠公 編，立達書局，1933.
- 『新亞教本初中國文』，陳椿年 編，新亞書店，1933.
- 『初級中學教科書國文』，葉楚傖 主編，正中書局，1934.
- 『高中當代國文』，薛無競、沈聯璧、沈春暉、畢任庸 編，中學書局，1934.
- 『開明國文講義』，夏丏尊、葉聖陶、宋雲彬、陳望道 編，開明書店，1934.
- 『小學校高級用實驗國語教科書』，國立編譯館 主編，商務印書館，1936.

『新編初小國語讀本』, 呂伯攸 編, 中華書局, 1937.

『新編初中國文』, 安文翰 編, 中華書局, 1937.

『初級國文甲編』, 方阜云, 羊達之 等 編, 國定中小學教科書七家聯合供應應處,
1945.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Modern Chinese Readers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izational Literacy

Jung, You Sun · Jiang Xuejin

Civilizational literacy refers to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internalizing, or reconstructing the values and systems of civilization through reading. In this context, modern Chinese readers and textbooks embody the complex task of reconciling the acceptance of Western civilization with traditional values. These materials serve as significant resources for exploring how society at the time implemented and developed civilizational literacy.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50 widely used modern Chinese language textbooks from the modern period of China to examin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civilizational literacy during different time periods.

Key words : China, Modern times, Textbook, Reading Textbook, Civilized literacy

투 고 일 : 2025. 1. 10. / 심 사 일 : 2025. 1. 15.~ 2025. 2. 15. / 게재확정일 : 2025. 2. 20.